

가케마쿠노타키 폭포

가케마쿠노타키 폭포는 기쿠치 계곡에서 가장 낙차가 큰 약 20 미터 높이의 폭포다. 계곡의 방문자 센터 가까이에 있는 다리 바로 아래에 있어서 폭포 아래에서 솟구치는 물보라 너머로 계곡의 하류를 볼 수 있다. 조건에 따라서는 물보라에 무지개가 걸릴 때도 있다.

기쿠치 계곡을 대표하는 험준한 폭포이기도 하다. 기쿠치 계곡의 화산암은 분화에 의한 고온의 물질과 저온의 공기가 상호 작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갈라진 틈이 형성되어 있다. 이 갈라진 틈으로 물이 흘러들어 직사각형의 바윗덩어리가 떨어진다. 그 결과 깎아지른 절벽이 되고 이러한 폭포가 형성된다.

‘가케마쿠’라는 폭포의 이름은 ‘걸려 있는 막’이라는 의미로서 폭포수가 뒤쪽의 절벽을 가려 무대와 관객을 가르는 커다란 무대막처럼 보이는 데서 유래했다.